1차 선택안

4·19 기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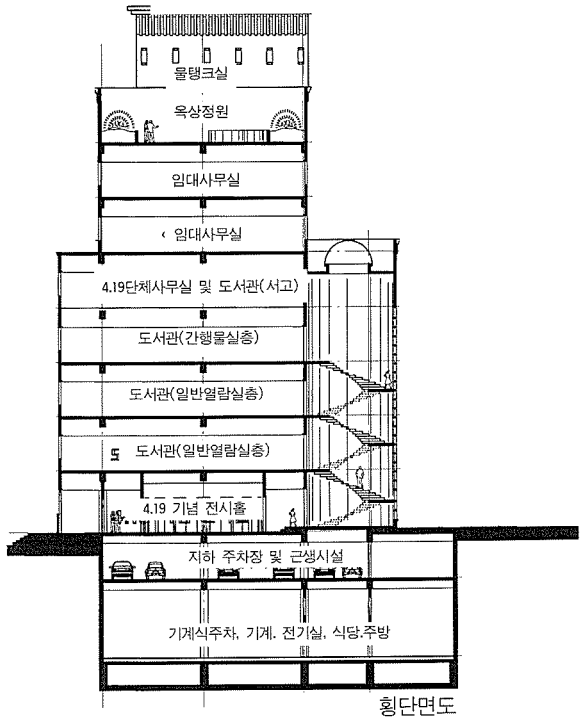
Memorial Library of The 4 · 19

보훈처에서는 4 · 19 정신을 기념하고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해 4 · 19 기념도서관 재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3월 3일 (주)아도무건축(장석웅)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지난 2월25일 15개 사무소의 작품을 마감하여 심사한 결과 당선작 없이 3작품을 선정, 2차 지명설계를 실시하여 최종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이상건축(강철희)안이, 가작으로는 피아건축(김후석)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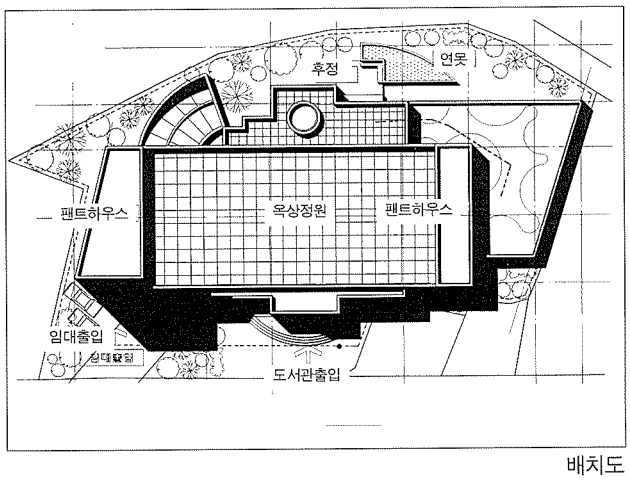
당선작

(주)아도무종합건축(장석웅)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6
대지면적 / 1,944.2㎡
건축면적 / 7,249.6㎡
건폐율 / 49.64%
용적률 / 264.75%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외장 / 화강석, 색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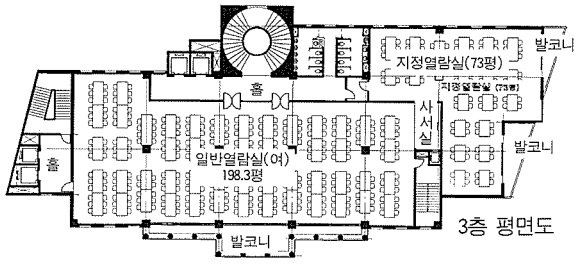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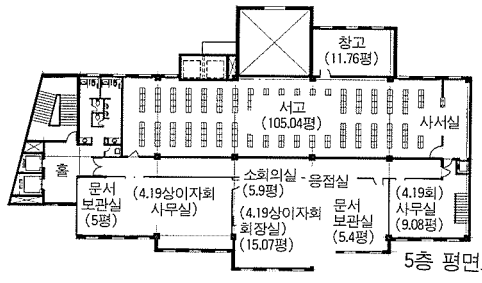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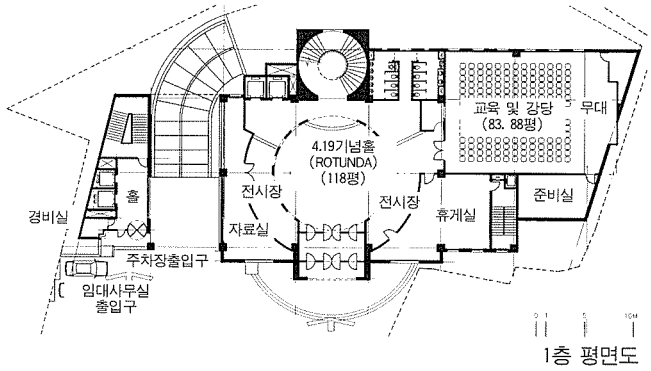
최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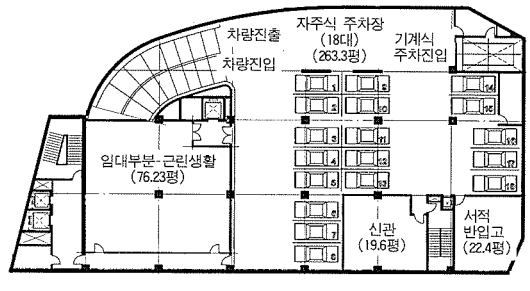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4.19 기념도서관을 설계하면서…

대학시절을 마무리 질 무렵, 4·19 혁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하야와 하와이 망명 등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변하는 시절에 제8회에 이어 제9회 국전에서 4·19학생기념회관의 설계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되어, 4·19는 나에게 많은것을 시사케 하였고, 그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뒤 4.19 기념도서관 재건립 현상설계는 나에게 또다시 남다른 감회와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이 그러하듯 본 4·19회에서도 의미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지만 그 운영과 관리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저층부에 임대사무실을 두어 수익성을 배가시키고, 상부층에 도서관 기능을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였으며,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승화한 의미에서 저층부를 화강석의 육중한 중량감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표현하였다. 상층부의 경쾌한 커튼월로 밝고 진취적이라는 건축언어를 구사하였으나, 주최측의 강한 반대에 의하여 당선작 없는 가작 3점을 선택하였고, 재차 응모토록 하여 최종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4·19 희생의 강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석조건축의 디테일을 구사하였고, 1층에 Rotunda를 두어 4·19의 기념성을 기리는 공간을 제시하게 되었다.

주어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